

2019년 3월 22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실적 시즌 앞두고 기대감 유입

마이크론 +9.62%, 애플 +3.68% Vs. 바이오젠 -2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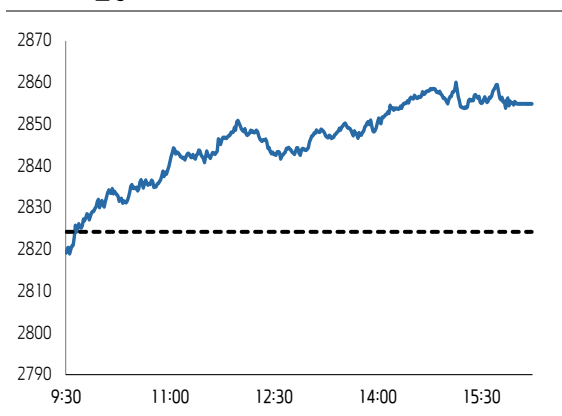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에 주목

미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일부 종목의 급등에 힘입어 상승. 특히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이 상승 주도. 애플도 실적 개선에 기반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다우 +0.84%, 나스닥 +1.42%, S&P500 +1.09%, 러셀 2000 +1.25%)

연준이 FOMC 를 통해 금리 동결을 시사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 그러나 이를 통해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에 주목하며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임. 전일 마이크론(+9.62%)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고, 재고조정을 발표. 이 결과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 주목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0% 상승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S&P500 1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 둔화될 것으로 전망. 특히 IT 가 전년 대비 10% 넘게 둔화되는 등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져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는 여느 때보다 주목 받고 있음.

이런 가운데 애플(+3.68%)이 니덤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buy→strong buy)과, 씨티그룹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170 달러→220 달러)에 힘입어 상승하며 투자 심리 개선. 니덤은 애플에 대해 ①애플 생태계 가치 상승 ②25 일 있을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기대 ③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등을 기반으로 실적 및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씨티의 경우는 애플이 4 월 실적 발표에서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증가를 기대하며 목표주가 상향. 한편,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부품회사인 큐로브(+6.90%)에 대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neutral→buy) 한 점도 애플 상승 요인. 골드만삭스는 큐로브가 ①스마트폰 판매 안정화 ②5G 인프라 사업 성장 ③실적 개선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바이오젠(-29.23%)은 임상 시험 철회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 이를 통해 향후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 이렇듯 미 증시는 실적 전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서는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84.88	+0.36	홍콩항셱		29,071.56	-0.85
KOSDAQ		743.52	-0.83	영국		7,355.31	+0.88
DOW		25,962.51	+0.84	독일		11,549.96	-0.46
NASDAQ		7,838.96	+1.42	프랑스		5,378.85	-0.07
S&P 500		2,854.88	+1.09	스페인		9,355.60	-0.53
상하이종합		3,101.46	+0.35	그리스		717.90	+0.34
일본		21,608.92	휴장	이탈리아		21,373.06	+0.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반도체, 데이터센터 관련 업종 급등

마이크론(+9.62%)이 양호한 실적 발표한 이후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이에 힘입어 인텔(+1.52%), TI(+2.36%), NVIDIA(+5.47%), AMAT(+4.45%), 램리서치(+4.59%), 웨스턴디지털(+9.77%)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0% 상승 했다. 애플(+3.68%)은 실적개선을 기대하며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 부품주인 큐로브(+6.90%)도 실적 개선 기대속에 투자의견 상향 조정으로 강세를 보였다. 브로드컴(+1.98%), 스카이웍(+5.28%) 등 관련 부품주도 동반 상승 했다.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회사인 아리스타 네트워크(+5.55%)은 골드만삭스가 자사의 커버리지 기업들 중 EPS 성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아마존(+1.22%), 알파벳(+0.79%), MS(+2.30%) 등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 수혜주들도 동반 상승 했다. 반면, 바이오젠(-29.23%)은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시험 중단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 했다. JP모건(-1.58%), BOA(-1.61%)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축소되자 매물 출회가 이어졌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48%	대형 가치주 ETF(IVE)	+1.07%
에너지섹터 ETF(OIH)	0.00%	중형 가치주 ETF(IWS)	+1.27%
소매업체 ETF(XRT)	+1.02%	소형 가치주 ETF(IWN)	+0.92%
금융섹터 ETF(XLF)	-0.31%	대형 성장주 ETF(VUG)	+1.46%
기술섹터 ETF(XLK)	+2.51%	중형 성장주 ETF(IWP)	+1.8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3%	소형 성장주 ETF(IWO)	+1.60%
인터넷업체 ETF(FDN)	+1.37%	배당주 ETF(DVY)	+1.14%
리츠업체 ETF(XLRE)	+1.7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2%
주택건설업체 ETF(XHB)	+2.0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6%
바이오섹터 ETF(IBB)	-1.07%	미국 국채 ETF(IEF)	-0.05%
헬스케어 ETF(XLV)	+0.39%	하이일드 ETF(JNK)	0.00%
곡물 ETF(DBA)	+0.78%	물가연동채 ETF(TIP)	-0.01%
반도체 ETF(SMH)	+3.45%	Long/short ETF(BTAL)	-0.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7.92	+0.69%	+2.61%	+3.34%
소재	350.83	+1.04%	+1.21%	+0.88%
산업재	629.09	+0.95%	+0.52%	-1.06%
경기소비재	903.38	+1.32%	+4.02%	+4.00%
필수소비재	572.56	+1.19%	+1.46%	+1.79%
헬스케어	1,068.66	+0.35%	+0.80%	+0.80%
금융	433.09	-0.30%	-1.51%	-1.38%
IT	1,317.68	+2.47%	+4.06%	+7.90%
커뮤니케이션	160.50	+0.89%	+1.24%	+5.12%
유틸리티	294.63	+1.05%	+0.20%	+2.81%
부동산	223.22	+1.79%	+1.02%	+3.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지속될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8% MSCI 신흥 지수 ETF 도 0.1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778 계약)에도 불구하고 1.20pt 상승한 284.0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6.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협상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속에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좁혀진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관련 우려는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거나 실적 하향 조정 바닥 이슈가 불거진 종목들과 업종에 대해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증시도 이를 감안 반도체, 5G,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KOSPI 200 기준 12 개월 Fwd 영업이익은 165.5 조원으로 지난주(167.1 조원) 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소비재 및 에너지 업종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왔던 하향 조정 속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 글로벌 증시 특징처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치 변화에 따라 개별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수 개선

3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4.1)이나 예상치(5.5)를 상회한 13.7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2.4→1.9)가 개선된 가운데 출하지수(-5.3→20.0)와 재고지수(3.3→17.2)가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고용지수(14.5→9.6)은 둔화되었다.

2 월 미국 컨퍼런스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예상을 상회했다. 동행지수는 0.2% 상승 했으며, 후행지수는 변화가 없었다. 컨퍼런스보드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갈 수 있으나, 연말로 갈수록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발표해 전일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부합된 내용을 언급 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 만 1 천건으로 지난주(23 만건)나 예상치(22.5 만건)를 하회하는 등 고용시장 안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강세 전환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치 경신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달러 강세 영향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전일 드리이빙 시즌을 앞두고 재고가 대체로 증가하는 시기에 EIA가 큰 폭의 감소를 발표하는 등 공급 증가 우려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었던 점을 감안 낙폭은 제한 되었다. 그렇다고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상승폭이 확대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연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점도 달러화 강세 요인이었다. 엔화는 비록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약세폭은 제한된 모습이다.

국제금리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및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동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해 매물이 출회되는 등 보험권 혼조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단기물은 상승하고 장기물은 하락하는 등 수익률 격차가 좁혀진 모습을 보였다. 한편, 스위스와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으나,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일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 시사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4% 상승 했으나 철근은 0.6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9.98	-0.42	+1.82	Dollar Index	96.398	+0.67	-0.40
브렌트유	67.86	-0.93	+0.94	EUR/USD	1.1373	-0.35	+0.61
금	1,313.60	+0.44	+0.94	USD/JPY	110.8	+0.09	-0.81
은	15,437	+0.78	+1.75	GBP/USD	1.3102	-0.73	-1.06
알루미늄	1,899.50	-1.94	-0.18	USD/CHF	0.9925	-0.01	-1.13
전기동	6,425.00	-0.50	+0.33	AUD/USD	0.711	-0.08	+0.65
아연	2,835.00	-0.98	+0.35	USD/CAD	1.3374	+0.52	+0.29
옥수수	376.25	+1.28	+1.62	USD/BRL	3.8032	+0.69	-1.12
밀	466.50	+0.38	+3.04	USD/CNH	6.708	+0.31	-0.21
대두	910.50	+0.50	+1.34	USD/KRW	1127.70	-0.24	-0.63
커피	94.80	+0.05	-2.42	USD/KRW NDF1M	1126.95	+0.16	-0.7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37	+1.06	-9.34	스페인	1.098	-6.30	-9.00
한국	1.932	-5.50	-4.80	포르투갈	1.278	-3.50	-5.00
일본	-0.036	0.00	+0.50	그리스	3.722	-5.20	-8.50
독일	0.041	-4.30	-4.50	이탈리아	2.453	-7.10	-4.50